지식경제부 보도자료	http//www.mke.go.kr
2011년 10월 13일(목) 06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투자유치과장 유법민(2110-5361), 한종호 사무관(2110-5366)	

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북미기업 투자유치 성공

– 북미지역에서 외국인학교 설립, 건축자재공장 설립 등 3.35억불 규모 –

□ 지식경제부(최중경 장관)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기간중 **10.12일(수)**, 워싱턴DC에서 **건축자재공장·외국인학교 설립** 등 4개 기업에 대한 **3.35억불 규모**의 **투자신고식**을 개최하였음

< 투자신고식 개요 >

○ 일시 : '11.10.12(수) 15:30~16:30(현지시간)
○ 장소 : 워싱턴DC 윌라드호텔 뷰캐넌룸
○ 참석자 : 최중경 지경부 장관, KOTRA 북미지역본부장, 미국 투자기업 대표 등
○ 주요 성과 : Vnesto Capital 등 4개社 총 3.35억불의 투자유치
  – 외국인학교 설립(1.5억불, 美), 건축자재 생산공장(1.5억불, 캐나다), 인력개발·관리(20백만불, 美), 바이오시밀러(15백만불, 美)

○ **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위축된 투자환경** 속에서 **북미지역의 투자가들로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유치 성과**를 이끌어냄으로써, 한-미 FTA 비준 전망과 함께 한국의 투자환경이 견실함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됨

□ 최중경 장관은 "이번 미국 투자유치 성과는 **글로벌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와 그간 정부에서 추진해온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의 결과**"라고 밝힘

○ 참석한 미국 투자가들은 우수한 인적자원과 사회 인프라,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등 **한국의 투자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**하였으며, **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의지를 표명**함

□ 이번 외국인 학교 유치를 통해 **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생활여건**이 개선되어, 향후 **외국인들의 對韓 투자가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**되며

○ 또한, **친환경 건축자재**분야에서 선진기술을 가진 기업 유치를 통해 국내 **그린홈 확산에 기여**할 것으로 평가되며, 신성장동력분야인 **바이오제약** 분야에서 외국의 **선진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**가 될 것임

□ 지식경제부는 **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글로벌 FDI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**되는 상황에서 **외국인투자가의 투자심리 위축을 방지**하기 위해 **연말 집중IR 개최**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임

○ 일본 등 전통투자국 뿐만 아니라 최근 외국인투자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**중동, 중국, 인도** 등 **신흥국**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

* '11.4분기 IR계획 : 일본(11월), 인도(11월), 중동(12월), 중국(11월/12월, China Desk 활동) 등